

협회 News

건의 및 의견제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건의

협회는 지난 5월 4일(목), 지난 2004. 5. 29 개정된 소방관련법령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에는 소방기술사 자격 소유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주거복합건물 및 초고층아파트의 증가 추세와 아파트 공사의 특성과 소방기술사 배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3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감리원 배치기준을 현행 소방기술사에서 특급감리원으로 완화해 줄 것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에 건의하였다.

소방기술사는 현재까지 총 200여명이 배출된 상태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방기술사를 배치하는 것은 소방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공사중인 현장에서 소방기술사가 이직하는 경우 공사중단 등으로 주택업계와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완전후분양주택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개선 건의

협회는 지난 5월 18일(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시 부기등기대상에서 제외하되,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등을 말소 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완전후분양주택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개선 의견을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 건의하였다.

또한 현행 법체계하에서의 부기등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양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고 있는 바, 지자체마다 완전후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시 부기등기 운영에 대한 기준이 달리고 있어 완전후분양시 건물부문에 대해서만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시 신청일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주택공급계약체결일)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부기등기토록 지침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행 주택법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대지분 포함)에 대

협회 News

회원 News

건교부 News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완전후 분양주택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관련규정이 불명확하여 부기등기 적용여부 및 등기대상 등에 대한 법 적용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협회는 지난 5월 18일(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안의 85㎡이하 공동주택)과 공공택지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8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와 관련한 우리협회의 검토의견을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제출하였다.

협회는 선분양제하에서의 분양가는 사전 추정가격이고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가 사업장별로 사후에 검증·정산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므로 주택규모별로 각 공개항목(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기타비용)에 대한 총액만을 구분 표기토록 해 줄 것과 사전 공개된 항목별 금액은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된 분양총액으로 항목별로 다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부기토록하며, 아울러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는 입주자와의 분쟁 야기 소지와 승인권자의 권한 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권자가 분양가 세부산출내역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행위를 지양토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샷시 설치시기 개선 건의

협회는 지난 5월 19일(목), 공동주택 발코니 샷시 설치와 관련하여 지침 등을 통하여 설계도면에 반영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 시공업체 및 입주자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건의하였다.

또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공 중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입주가 임박하여 사업계획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이라도 샷시 설치를 허용토록 해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샷시의 설치의 사업계획승인시 설계도면에 표기없이 입주자가 사업주체·시공자 또는 샷시 설치 전문업체와 별도 계약으로 사용검사 전·후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샷시를 사용승인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사용승인시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않고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선 건의

협회는 지난 5월 24일(화), 지하 3층 및 그 아래에 위치한 지하층 중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도록

개정 추진 중인 건축법시행령이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지하층은 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제처 경제법제국과 건설교통부 건축과에 건의하였다.

현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적을 산정에 있어서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토록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건축과 관련된 법령과 인·허가절차가 복잡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인이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검토의견 제출

협회는 지난 5월 26일(목), 정부에서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안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사업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잠정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이것이 불가한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배제 기간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로 명문화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 건의하였다.

회의 참석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위한 공청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5. 5. 11(수) 14: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목적홀
- 주 최 :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제발표
 - 제1주제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의 필요성(한국 실내환경학회 김윤신 회장)
 - 제2주제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정책(환경부 생활공해과 윤용문 과장)
 - 제3주제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범위의 설정근거 및 주요내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구 박사)
- 사회자 및 토론자
 - 사 회 : 손종렬 교수(고려대학교)
 - 토 론 자 : 김태곤 사무관(건교부 주거환경과), 윤동원 교수(경원대학교), 이대우 부장(현대건설), 조성찬 상무(삼성물산), 황선옥 이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의 적정 여부에 대한 근거를 입주자에게 제시하고 시공자의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함.

환경부는 지난 9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각 오염물질별 권고기준의 범위(포름알데히드가 100~300 $\mu\text{g}/\text{m}^3$ 이며 Δ 벤젠 5~45 Δ 톨루엔 850~1300 Δ 에틸벤젠 360~1500 Δ 자일렌 240~700 Δ 스티렌 300~1500 등)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11일과 13일 오후 2시부터 각각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건설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관련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과 오는 8월까지 실시하는 2차 실태조사(총 800가구 대상) 결과 등을 반영해 권고기준(안)을 마련하여 올 9월말 권고기준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시설등에관한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권고기준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판교신도시 관련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5. 5. 4(수) 15:00, 건설교통부 복합도시기획단장실
- 참석자 :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회의내용 : 판교신도시 공영개발택지공급 관련 논의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5. 5. 13(금) 15:00, 대한주택공사 회의실
- 참석자 : - 건교부 : 한창섭 주거환경과장, 김태곤 사무관
-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관계자, 우리협회(제도1팀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공사
- 회의내용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방안 및 기준 마련 협의

투명사회협약실무협의회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5. 5. 17(화) 10:00, 건설교통부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우리협회(서병두 전무) 등 17개 건설관련단체(상임위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 건설경제담당관
- 회의내용 : 지난 '05.4.29 건설교통부와 건설관련업계

가 체결한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한 협약이행을 위한 세부실천방안 협의

제5차 한·중 주택도시협의회 참석

- 기간 : 2005. 5. 24(화)~5. 30(월), 6박7일간
- 장소 : 중국 북경 및 곤명
- 참석자 : - 한국측 : 주택국장(단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차별시장위원회,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우리협회(남희용 정책연구실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국민은행, 대한주택보증(주), 주택산업연구원
- 중국측 : Hou Xi-Min(주택·부동산업사 부사장), Fu Dian-Qi(도시와농촌기획사 농촌기획처 처장), Li Xiang-Yang(합비시 건설위원회 총괄엔지니어) 등

○ 회의내용

- 한·중 양국간 주택정책 현안 의제발표
 - 한국측 : 주택품질 제고방안(주거환경과 과장 한창섭),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과제(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고철),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현황 및 과제(주택도시연구원 원장 박헌주)
 - 중국측 : 발전중인 중국부동산시장(주택 및 부동산사 부사장 Hou Xi-Min), 주택사업화 현대화 추진, 에너지·토지절약형 주택건설, 인류주거지속가능, 능한 발전 추진(주택산업화촉진중심 부주임 Liang Xiao-Qing), 과학발전을 공고 수립, 힘껏 건축 "4절" 실시(합비시 건설위원회 총괄엔지니어 Li Xiang-Yang)
- 한국 주택업체의 중국내 건설투자 활동 지원

위원선임

「건설교통규제개혁심의회」 위원 추천

- 추천처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
- 추천위원 : 장성각 상무((주)대우건설), 장태일 상무(SK건설(주)), 홍금표 상무(현대산업개발(주))

「부실채권교부 검토위원회」 위원 추천

- 추천처 : 대한주택보증(주)
- 추천위원 : - 협회장 지명 : 김양기 이사(주)대우건설
- 회계전문가 : 박진우 상무(삼일회계법인)

설명회 개최

「주택사업관련 법령 설명회」 개최 안내

- 목 적 : 회원사의 주택사업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도시개발법령'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대한 설명과 개선의견 수렴·반영으로 회원사의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 지원
- 일시 및 장소 : 2005. 6. 24(금) 10:00~18: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참석대상 : 회원사 주택사업담당 임직원
- 행사일정

구 분	시 간	비 고
• 등록	09:30~10:00	
• 도시개발법령 해설 - 법령 주요내용 - 질의·응답	10:00~12:00	• 강사 : 허용 사무관 (건교부 도시관리과)
중식	12:00~13:00	
• 지구단위계획제도 해설 - 제도 주요내용 - 질의·응답	13:00~15:30	• 강사 : 김보성 팀장 (서울시 도시계획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설 - 법령 주요내용 - 질의·응답	15:30~18:00	• 강사 : 박승기 사무관 (건교부 주거환경과)

회원 News

쌍용건설, 싱가포르 건설대상 최우수상 수상



창이 라이즈 아파트 전경

- 창이 라이즈 아파트 ... 건설대상 주거건물부문 설계분야 최우수상
- 설계·시공 일괄 수행한 턴키 공사 ... 우수한 설계능력 해외서 인정 받아
- 87년 래플즈 시티 프로젝트 이후 11번째 ... 국내 업체 중 최다 수상 기록

쌍용건설(대표이사 金錫俊)이 시공한 창이 라이즈 아파트(Changi Rise Condominium)가 '싱가포르 건설대상(BCA Awards) 주거건물부문' 설계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창이 라이즈 아파트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방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단순 시공이 아닌 설계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 건설업계의 위상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 인근에 위치한 총 598가구(29~97평) 규모의 이 아파트는 9~10층 아파트 11개동과 야외 수영장, 인공 백사장, 물미끄럼틀, 놀이시설, 소극장 시설 등을 갖춘 최고급 리조트형 주거단지이다.

지난 2000년 싱가포르 최대 부동산 투자개발 회사인 시티 디벨롭먼트社(City Development)로 부터 미화 6,300만 달러에 수주했으며, 지난해 6월 완공 시점에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품질심사(CONQUAS)를 통과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건설대상은 싱가포르 건설청(BCA / Building & Construction Authority)이 전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 및 공사관리 능력, 시공기술 등을 평가해 최우수 설계·시공 업체에게 수여하는 건설관련 최고 권위의 상이다.

쌍용건설은 지난 80년 싱가포르에 진출한 이래 국내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1회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부문을 수상하기는 2001년 캐피탈타워(Capital Tower)이래 두번째이다.

한편 쌍용건설은 세계 최고층호텔로 기네스북에 오른 73층 규모의 웨스틴 스탬포드호텔(Westin Stamford Hotel)을 포함한 래플즈 시티(Raffles City)를 시공하는 등 해외에서만 총 50억 달러가 넘는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회도로(Manado Bypass) 및 수마트라 동부 해안 고속도로(Sumatera East Coast Highway), 인도 서드 내셔널 하이웨이(Third National Highway) 등의 공사를 수행 중이다.

〈쌍용건설(주) 자료제공〉

현대건설, 2005 싱가포르 건축 디자인상 대상 수상



골든힐파크콘도미니엄 전경

- 최고급 아파트 '골든힐파크 콘도미니엄'으로 창의성·고품질 평가받아
- 92년 창이 공항·창이 종합병원, 99년 선택 시티 이어 또다시 수상 쾌거

현대건설(사장 李之松)이 시공한 싱가포르 골든힐파크 콘도미니엄(Goldenhill Park Condominium)이 싱가포르 정부에서 수여하는 2005 '싱가포르 건축 디자인상(Best Buildable Design Awards)' 대상(大賞)에 선정됐다.

싱가포르 건설청(BCA :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서 주관하는 싱가포르 건축 디자인상(Best Buildable Design Awards)은 전년도에 완공한 건물 중 디자인 평가를 통해 최고의 우수성을 보인 프로젝트에 부여하는 상으로, 현대건설은 연면적 2만5,000㎡ 이상 건물에 시상하는 최고상인 '대상'에 선정됐다.

싱가포르 건축 디자인상을 수상한 골든힐파크 콘도는 싱가포르 우수 개발업체인 CDL(City Developments Ltd.)사에서 발주한 미화 약 4,500만달러 규모의 콘도미니엄 공사로, 지상 20층 5개동 총 390세대 규모의 최고급 콘도미니엄이며, 콘도 건물 외에도 클럽하우스,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1년 6월 골든힐파크 콘도 공사에 착공, 지난해 1월 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바 있는데, 공사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고품질 시공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이같이 수상케 됐다.

특히, 현대건설은 지난 92년 창이 공항(Changi Airport)과 창이 종합병원(Changi Hospital)이 싱가포르 건축 디자인상 대상을 공동수상하고, 99년에도 싱가포르 내 최고의 건축물로 손꼽히는 선택 시티(Sunteck City)가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골든힐파크 콘도가 대상을 수

상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쌓아온 뛰어난 명성을 다시금 확인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골든힐파크 콘도미니엄은 지난해에도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 대상(Safety Awards)'을 수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건축 디자인상을 수상함으로써 싱가포르 최고의 콘도미니엄으로서 그 위상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엄격한 국가로서 '건축 디자인 대상' '안전관리 대상' 수상은 모든 공사 수행이 완벽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골든힐파크 콘도가 지난해 '안전관리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 들어 싱가포르 건축 디자인상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현대건설의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경험을 국제적으로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을 통해 향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건축공사 수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수상과 관련, 시상식이 5월 19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싱가포르 건설청 인사, 발주처인 CDL사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현대건설(주) 자료제공)

대원, 베트남에 이어 태국주택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위한 교두보 확보

대원은 3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한국의 1군 건설회사로서 외국인 최초로 베트남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한 투자허가를 취득한 것에 이어 태국 방콕시에 Daewon Cantavil(Thailand) Co., Ltd 설립을 위한 합자 계약을 2005. 5. 21(토요일) 대원의 본사(청주소재)에서 성황리에 체결하였다.

국내 건설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태국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사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본 합자회사는 (주)대원을 포함하여 태국의 대표적 상장회사들로서 부동산 및 철강회사인 LPN 그룹과, 3개의 신문사와 1개의 방송국을 운영하는 조명회사 L&E 그룹이 주주로서 참여하게 된다.

Daewon Cantavil(Thailand) Co., Ltd는 방콕 시내에 40층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2개 단지를 개발, 시공 및 분양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합자회사를 선두지휘하게 된다. 대원은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베트남의 주택사업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태국으로 그 사업역량을 확장함으로써 해외시장의 프론티어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주)대원 자료제공》

삼성물산, 2005 래미안 페스티벌



2005 래미안 페스티벌 행사 모습

가정의 달인 5월에 건설업체가 입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시선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사장 이상대)은 고객 마케팅 차원에서 21일 래미안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용인 삼성에버랜드에서 '2005 래미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래미안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래미안 페스티벌 행사는 올해 3만여명이 참가해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다.

인기가수들의 공연과 각종 이벤트 등으로 꾸며지는 래미안 페스티벌 행사는 김승현 이해승씨의 사회로 시작해 인기 가수 코요태, 윤도현밴드, 인순이, 장윤정, 이승철, 한류스타 보아 등이 출현해 흥겨운 공연을 선사했다.

건설업계 최초로 시작된 입주자 초청 행사인 래미안 페스티벌은 고객만족 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얻는 아주 성공적인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자료제공)

포스코건설, 이란에 12억弗 규모 발전소 건설
포스코건설(사장 한수양)이 이란에 12억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한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12월 국내 에너지종합개발회사인 AWI와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따라, 이란정부가 계획중인 이란의 쿠제스탄(KHUZESTAN)과 부셰르(BUSHEHR)지역에 각각 1000MW급 천연가스발전소 2기를 건설하게 된다. 총사업비 규모는 1조2천억원이다.

AWI는 지난 5월 17일 이란정부의 발전사업전담회사인 MAPNA와 "발전소 공동건설운영을 위한 IPP방식의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AWI와 MAPNA는 각각 70%와 30%의 지

분을 출자해 6월 중 합작법인인 AMPC를 UAE의 두바이에 설립할 예정이며, 포스코건설은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12월 16일 국내 에너지종합개발업체인 AWI(대표 지호준)와 이란의 발전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체결 당시에는 사업비 6억달러 규모의 500MW급 발전소 2기를 케르만샤와 야즈드에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규모가 두배로 늘어나 사업비 12억달러의 1,000MW급 천연가스발전소 2기를 쿠제스탄과 부셰르에 세우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란에서는 최초로 IPP 방식으로 추진될 천연가스발전소 2기의 공사기간은 각각 24개월이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AWI는 작년 11월 17일 이란산업개발재건기구(IDRO)와 발전소건설과 운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업체를 물색하던 중,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LNG 복합발전소 건설 경험이 있고 환경·에너지시스템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었다.

포스코건설은 포항, 광양제철소의 LNG 복합발전소를 비롯해 국내에서 총 2300MW의 발전소 건설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4월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주)에서 발주한 남제주화력발전소 3,4호기 건설공사의 공개입찰에서도 국내 유수의 대형업체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지난 1999년 12월 말에 이란의 국영철강사인 니스코(NISCO: National Iranian Steel Co.)로부터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연산 140만톤 규모의 용광로를 비롯한 제선설비 일체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해, 2005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한창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30년 제철역사상 최초로 해외에 용광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의 높은 플랜트기술 수준을 대변해 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IPP방식: Independent Power Producer, 민간자본을 활용한 전력공급 방식

(주)포스코건설 자료제공)

한신공영, 창립 55주년 "한신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한신공영은 5월 28일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전임직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한신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창립 55주년을 맞아 더욱 뜻 깊게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에는 최용선 회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650여명과 1,400여명의 가족 등, 총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신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날 최용선 회장은 대회사로 통해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임직원들과 임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내·외조를 해 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한 한신공영의 경영철학인 '효'와 '신바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생활 속 '효'의 실천을 부탁함과 동시에 본 행사와 같이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과 다양한 신바람 행사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신공영은 올 1/4분기 1,236억원의 매출액을 달성, 전년 대비 77%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건설업계에서 매우 돋보이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신공영(주) 자료제공)

현대건설, UAE 7억弗 규모 발전 담수 공사 수주

현대건설은 미화 6억 9,600만달러(한화 약 7천억원)규모의 UAE 제벨알리 "L" 발전 담수 2단계 공사(Jebel Ali Power & Desalination Station "L" - Phase II)를 발주처인 두바이 수전력청(Duba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으로부터 턴키(설계, 구매, 시공 등 일괄수행)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현재 최종 네고 중으로 수주가 확실시되는 공사를 포함하면 상반기 중에 21억달러 수주를 달성할 전망으로, 올해 전체 수주목표인 2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수주한 UAE 제벨알리 발전 담수 공사는 총 규모 9억 4,600만 규모의 발전·담수 플랜트 건설 공사로, 우리 회사는 컨소시엄의 리더社로 6억 9,600만달러 규모의 발전 부문의 공사를 담당하며, 2억 5천만달러 규모의 담수 부문은 이태리의 담수 플랜트 전문 건설사인 FISIA社가 맡는다. 동 공사는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및 일 5,500만 갤런(Gallon)의 담수를 생산하는 담수공장을 건설하는 초대형 플랜트 설비공사로, 두바이

Port 남서쪽 35KM 지점에 위치한 제벨알리(Jebel Ali) 전력단지 내에 건립되며, 공사기간은 35개월로 오는 2008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UAE에서 지난 2002년 미화 2억 5천만달러 규모의 제벨알리 "D" 발전소 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는데, 이번 공사 수주는 동일 발주처인 두바이 수전력청의 두터운 신뢰와, 아울러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풍부한 시공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이 바탕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발전소, 오일·가스 개발공사 등 해외 대규모 플랜트 공사에서 풍부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발전소 공사의 경우 UAE,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지에서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30억불 규모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미화 4억달러 상당의 쿠웨이트 에탄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한데 이어 이번에 7억달러 규모의 발전소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되는 이란 등 중동지역의 Oil & Gas, 발전소 등 플랜트 분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동 공사는 이지송 사장이 지난 5월 16일 두바이에 직접 현지 출장, 발주처와의 수주 협상을 지휘하여 발주처로부터 유리한 계약조건을 이끌어 내며 최종 수주를 확정 시킨 바 있다.

현대건설은 원유가 상승으로 재정이 넉넉해진 중동 산유국들이 향후 매년 300억달러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 수주를 계기로 수익성 높은 플랜트 공사 부문에서 다시 한번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어 향후 중동지역 플랜트 공사 수주 전망은 매우 밝아졌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주) 자료제공)

GS건설, '자이 +1' 서비스 "집먼지 진드기 꼼짝마!"



집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

GS건설은 고객만족 경영의 일환으로 '자이' 입주자들에게 '자이 +1'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이 +1' 서비스는 가정내 이불, 베개등에 서식하는 집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고, 자외선 살균기를 통해 곰팡이, 세균까지 소멸시키는 웰빙 청소서비스이다. 현재 죽전, 개포자이 등 6개 단지에서 실시 중이며, GS건설의 CS직원, '자이언 매니저' 및 AS 전문기사 등이 투입되고 있다.

한편 GS건설은 작년 1월부터 주부모니터 제도인 '자이언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다. '자이언 매니저'는 입주시 발생하는 하자과 고객의 불만, 불평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를 대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모델하우스 시공중의 다단계 점검이나 샘플하우스의 옵션제에도 투입되어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GS건설 주택CS총괄팀장인 김정린 부장은 "자이 입주민만이 받을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자이+1', '자이언 매니저' 등을 활용해 최대한의 고객만족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주) 자료제공〉

SK건설, 12억弗 규모 쿠웨이트 원유집하시설 터키공사 수주



손관호 SK건설 사장과 알 잔키 KOC 회장이 계약 체결후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 플랜트 공사
- 아로마틱 등 유화플랜트 추가 수주에도 총력 집중

SK건설이 12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였다. 이같은 수주금액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볼때 국내 업체가 단독으로 해외 플랜트공사에서 수주한 공사로는 최대 금액이다.

SK건설(대표이사 손관호, www.skec.co.kr)은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인 KOC(Kuwait Oil Company)가 발주한

12억 2,100만달러(한화 약 1조 2,200억원) 규모의 원유집하시설 및 가압장 시설개선을 위한 FUP(Facility Upgrade Project)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였다. 이를 위한 계약식이 5월 23일 11시(현지시각, 한국시간 오후 5시) 쿠웨이트市 KOC 본사에서 열렸다.

SK건설의 이번 수주는 설계, 구매 및 시공을 포함하는 턴키(일괄도급) 공사로 공사 범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은 쿠웨이트의 남동쪽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된 10개소의 원유집하시설(Gathering Center) 과 1개 가압장(Boosting Station)의 원유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공사이며, 또 다른 부분은 지하에 매설된 노후 배관을 안전관리를 위해 지상에 대체 배관으로 구축하는 공사이다.

이 공사가 준공되면 일산 약 43만 배럴의 원유를 증산할 수 있어 쿠웨이트 정부로서는 연간 약 8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기대되는 매우 중요한 공사이다.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개월로 2007년 7월 준공예정이다.

이 공사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의 플랜트 공사이다.

국내외 5개 업체와의 경쟁에서 공사 따내

SK건설이 이번에 참여한 원유집하시설 및 가압장 시설 공사는 총 규모가 19억달러에 이르는 대형공사로 A,B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발주가 진행되었다.

이 중 SK건설은 12억 2,100만달러 규모의 B그룹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SK건설이 이번 공사 수주를 위해 경쟁한 곳은 모두 5개 업체이다. 5개 업체에는 Petrofac, SNC, TR 등 해외 유명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SK건설의 수주금액인 12억 2,100만달러는 2위 업체와 불과 2%의 근소한 차이를 두고 있다.

최태원 회장, 쿠웨이트 정부와 KOC에 SK건설의 시공능력 세일즈

특히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는 최태원 SK(주) 회장이 에너지자원개발 민간외교를 통해 구축해온 쿠웨이트 정부 및 KOC 관계자와의 인연이 큰 역할을 했다고 SK건설은 설명했다. 40여년에 걸친 원유공급을 통해 SK에 대한 쿠웨이트의 신뢰와 최태원 회장과의 각별한 인연이 이번 SK건설의 수주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한 것.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7월 쿠웨이트 알 사바(Al-Sabah)총리가 방한했을 때 단독면담을 갖고 한국과 쿠웨이트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한 쿠웨이트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11월에는 직접 쿠웨이트를 방문해 원유공급에 대한 지원요청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SK건설의 플랜트 시공능력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

또한 SK(주)가 석유정제를 시작한 이래 KOC와는 40여년 동안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통해 폭넓은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선대 회장인 최종현 회장부터 구축해 온 쿠웨이트 정부 및 KOC와의 인연이 이번 공사 수주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SK건설은 덧붙였다.

국내 건설사중 쿠웨이트 시공실적 1위

SK건설은 1994년 액화 프로판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로 쿠웨이트에 진출한 이래 연료가스탈황시설 공사 (AGRP), 항공유탈황시설 공사 (ATK Merox), 더 건의 아흐마디 정유공장 화재복구공사 등 총 8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번 12억달러 공사 수주와 현재 최저 낙찰자로 선정된 PIC 아로마틱 공사가 수주로 이어질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총 공사 규모는 총 25억불에 이르러 국내 건설사중 최고 규모를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건설은 쿠웨이트 북동부에서 이번 수주한 공사와 유사한 KOC의 2억5천만달러 규모의 제15호 원유집하장(1월 준공)과 제130호 가압장의 화재복구공사(KOGRP)를 건설중에 있으며 금년 말 전체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향후 계획

SK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SK건설은 쿠웨이트 정부기관과 여러 발주처의 높은 지명도에 힘입어 석유정제와 유화 플랜트 공사 등의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며, 현재 쿠웨이트와 태국 석유화학회사가 각각 발주하는 대형 아로마틱 생산공장 건설공사 입찰에 국내외 업체들과 공동 도급으로 참가하고 있어 이들 공사 또한 금년 상반기중 수주 성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SK건설(주) 자료제공〉



건교부 News

〈2005년 5월 10일자 : 서기관급〉

서기관 박상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실무지원단 개청준비과장

서기관 정필만 :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서기관 이향호 : 국립지리정보원

서기관 백승근 :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파견

시설서기관 박하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파견

서기관 김형수 : 건설교통부

〈2005년 5월 10일자 : 사무관급〉

토목사무관 강명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실무지원단 개청준비과

행정사무관 김영길 :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행정사무관 장우철 : 주택국 주택정책과

〈2005년 5월 11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토목주사보 한수원 : 토지국

영산강홍수통제소 토목주사보 이승희 : 주택국 공공주택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축주사보 박정운 : 도시국 건축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토목주사보 김정민 :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항공교통관제소 행정주사 김윤근 : 행정중심복합도시실무
지원단

〈2005년 5월 11일자 : 파견 및 지원근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설관리관 임태모 : 재건축추진상황
점검반

주택국 주거환경과 행정사무관 김태순 : 재건축추진상황점검
반

주택국 주거환경과 토목주사 정경희 :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

주택국 주택정책과 행정주사 이영규 :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

〈2005년 5월 31일자 : 승진〉

이사관 승진 : 홍보관리관 부이사관 이재홍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이사관 손정웅

부이사관 이영근

부이사관 정일영

부이사관 승진 : 도시국 건축과장 기술서기관 장기창

정책홍보실 혁신기획관 기술서기관 정내삼

도시국 건축과장 기술서기관 장기창

도로국 도로정책과장 서기관 김희국

복합도시기획단 복합도시정책과장

서기관 권오열